

분리발주 법제화 관련 대응방안 모색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3월 19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이사,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3월 19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이사,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분리발주 법제화가 확정됨에 따라 협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된 회의이다.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그간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열린 회의”라고 언급하며 “분리발주 법제화는 우리협회 창립 시부터의 숙원사업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아주 큰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돈 회장은 또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정부부처, 국회, 이해단체들의 동향을 정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이 험난한 여정이겠지만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승산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분리발주 법제화 법안의 국회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리발주 법제화와 관련하여 협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2013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의결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3월 21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54차 회의를 개최했다

가스설비공사협회(위원장 조종택)는 지난 3월 21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54차 가스설비공사협회 회의를 개최했다.

가스설비공사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 2013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하고 △시공감리수수료 인상에 따른 건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정 건의 △2013년 LH공사 가스설비공사 분리발주 현황 보고 △2013년 한국가스공사 가

스설비공사 분리발주 계획 등을 보고했다.

조종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겨울을 보내고 피는 새싹이 더욱 아름다운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나면 더 큰 희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업체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친목·화합·교류를 원활히 해야 하며, 저가수주 등 업계 발전을 해치는 행위는 지양하고 공정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설비 등 설계도서가 별도 작성된 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건의

기획재정부가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3개 단체와 함께 지난 3월 22일 조달청 회의실에서 분리발주 법제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김재신 과장, 정다운 사무관을 비롯해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희 총괄본부장,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정책본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건설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이 논의됐다.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건설 3개 단체의 의견

단체	의견
대한설비건설협회	국가재정법 대규모사업공사(토목500억, 건축200억), 기계설비 등 설계도서가 별도 작성된 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대한건설협회	법제화 반대, 현행 유지 또는 해당 조문 삭제
대한전문건설협회	100억원 공사 분리발주 의무화하되, 건설법 상 3개 공종 이상 및 공사금액 40% 이상 분리발주 의무화

이날 회의에서 김경희 총괄본부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원·하도급 구조로 분리되어 고착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페이퍼컴퍼니 양산, 초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 만연, 원도급업체의 부실경영에 따른 동반 악화 등이 초래됐다”고 언급하며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설계도서뿐만 아니라 표준 품셈 역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 되어도 하자 및 공정관리에 전혀 지장이 없으나 그 동안 발주처의 잘못된 관행으로 통합발주 되어왔다”면서 “분리발주 법제화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번 기회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법에 명시하는 확실한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분리발주 법제화 건의 내용 -

-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태동 시부터 특정업종의 시장참여를 ‘원도급과 하도급 구조’란 잘못된 관행으로 고착되어 왔음
 - 건설업체 중 시공과는 전혀 무관하게 공사를 수주하여 일정금액을 뚝 떼고 초저가로 하도급 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건설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고,
 - 원가 이하의 초저가하도급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도 남는 것은 부도·파산임
 - 또한 부실경영으로 도산되는 원도급업체의 잘못을 수많은 전문건설업체가 떠 맡아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설계도서(도면, 시방, 내역) 및 표준품셈이 독립되어, 분리발주 되어도 하자 및 공정관리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잘못된 관행으로 통합발주 되어왔음
 - 통합발주공사도 하자보수는 결국 하도급으로 시공한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며, 하자보수 이행이 잘 안될 경우 보증기관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기계설비업체가 하자보수보증)으로 처리하고 있음
 - 또한 건축공사에서 기계설비와 유사한 전기설비의 경우도 수십년 간 분리발주하여도 공정관리에 전혀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음
 - ※ 오히려, 건축공사와의 공정 연관성은 기계설비보다 전기설비가 더욱 복잡하다고 볼 수 있음(스라브판 내 거미줄과 같은 전선관 매입과 벽체 및 기둥에도 콘센트 박스 매설 등 수 많은 전선관 매입)
-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는 기계설비공사가 하도급으로 인해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결론지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쇠신 정책과제로 채택
 - 1994년 6월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제3호)의 단서조항인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임
 -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해당조문에 명시코자 하였으나 재무부에서 이를 포괄적 개념으로 만들었음
- 그 결과 지난 20년간 발주기관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많은 혼선을 초래, 행정낭비 발생
 - 따라서 분리발주 법제화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번 기회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법에 명시하는 확실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추진



대한설비건설협회 TF 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3월 7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2차 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회장 이상일) 회의를 개최했다.

TF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분리발주 법제화를 위한 우리협회의 대응방안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업무추진 현황을 비롯하여 공공기관별 발주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지금 분리발주 법제화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힘들더라도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특히 “분리발주 법제화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공사 분리발주 확대 건의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고용서비스협회 서울시지회는 지난 3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앞줄 좌측 다섯 번째,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3월 5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김혁),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울시지회(회장 원택용)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춘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정용림 부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 등 서울시 건설위원회 위원 및 시의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3개 단체 서울시회 회장단 및 운

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서울시 정책이 복지정책 중심으로 변화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제한 및 대형공사 전면 재검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건설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따라 3개 단체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업계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공사 발주물량 확대를 통한 일용 건설근로자 일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의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건의하는 고태식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부회장

자리 창출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공사 분리발주 확대 △실적공사비제도 적용 배제 △계약심사제도 적용대상 상향조정 △건설시장 활성화와 건설 근로자 취업 지원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공사원가 반영 등을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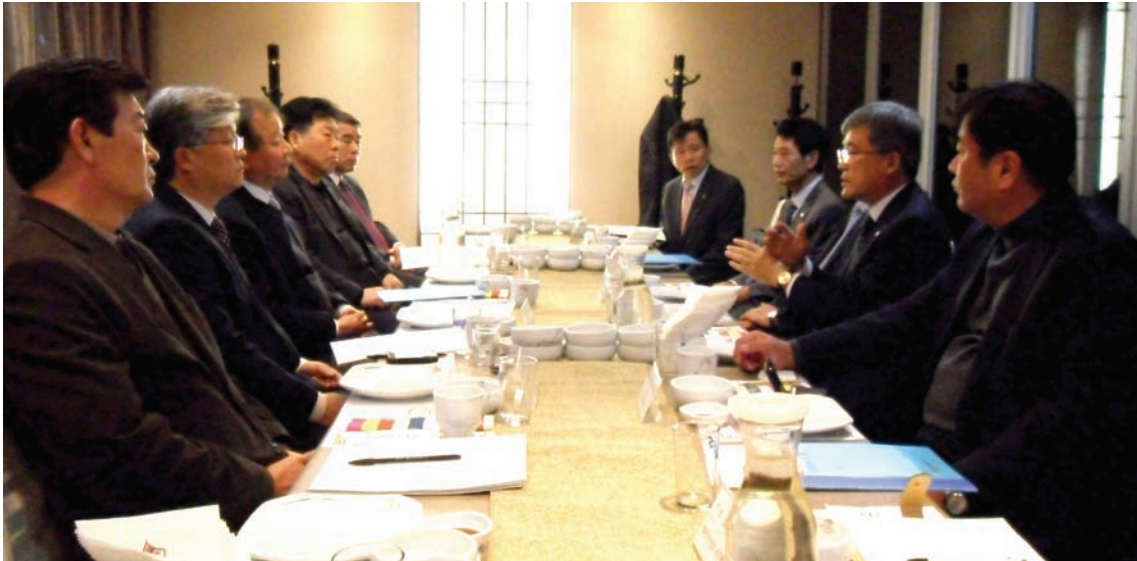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고태식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부회장[준제이앤씨(주) 대표이사]은 서울특별시 회원사를 대표하여 김춘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장에게 분리발주 활성화를 건의했다.

고태식 부회장은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람에 비유하면, 신체의 신경계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공종 중의 하나로 건축물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25%”라고 언급하며 “설계도서가 명확히 구분되고, 하자책임구분이 확실한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함에도, 행정편의주의 및 관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종합건설업

체에 일괄발주하여 설계가 50% 대의 저가하도급을 받고 있으며, 이에따라 양질의 기능공을 쓸 수 없고 공사의 품질도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태식 부회장은 “현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공정한 사회, 동반성장, 상생정책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주변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공사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소 기계설비공사업체의 공사 참여기회 확대와 경쟁력 강화,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부실시공 방지를 비롯한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를 비롯한 각 구 및 SH공사·서울메트로 등 산하 공기업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부터라도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회원사 애로사항 및 협회 추진사업 설명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3월 25일 2013년도 상반기 제1권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3월 25일 일반 회원사의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상호 친목도모를 통한 협회 제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3년도 상반기 권역별 간담회(제1권역)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일 회장 및 협회·조합 임직원을 비롯해 하나지엔씨 박동일 대표이사(1권역 회장), 삼양기계설비 최명철 대표이사, 토퍼스엔지니어링 강전구 대표이사(1권역 총무), 산돌기술 성하동 대표이사, 현민이엔씨 정호교 대표이사, 진우이엔씨 김상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서울특별시회는 일반 회원사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일반 회원사들의 의견이 협회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분리발주 법제화 등 협회 추진사업을 비롯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해외보증제도 개선, 선급금공동관리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 상반기 권역별 간담회 추진일정

구 분	제2권역	제3권역	제4권역	제5권역
지역	서초,관악,동작	강남,송파,강동	성동,광진,중랑,노원,성북,도봉,동대문,강북	마포,용산,종로,은평,서대문,중구
일정	4. 9(화)	4. 23(화)	5. 9(목)	5. 28(화)

서울특별시회 업무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3월 28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5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3월 28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58차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고 △총회 결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초청 간담회 개최 결과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내용 △연간 행사계획 및 일정 등 3월 업무추진 실적 및 4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특별시회에서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설비 분리발주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및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계약법 상 공사의 분할·분리계약 조항 신설 및 시행령 상의 분할계약금지 조항 개정 법안을 기획재정

부에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오니 운영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서울특별시회 4월 업무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4월 업무추진 계획

-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추진
- 분리발주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업무 추진
- 서울시 권역별 회원사 간담회 추진
- 운영위원회 및 회원사 등산대회 개최
- 2013년도 적용 『기계설비 일위대가표』 배부
- 제31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 접수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 육성 지원



전북도회는 전주비전대학교 자동화기계과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사진 왼쪽 : 이영길 회장, 오른쪽 : 홍순직 총장)

전북도회(회장 이영길)는 지난 3월 4일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입학식에서 전주비전대학교 자동화기계과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이영길 회장은 홍순직 총장에게 장학금을 기탁하며 “전주비전대학교에 산업체위탁교육으로 자동화기계과가 신설되어,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사를 대표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면서 “장차 전주비전대학교 자동화기계과 학생들이 전문가로 성장하면 기계설비업계의 한 단계 도약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길 회장은 또한 “앞으로도 전북도회는 기계설비업계의 전문가 발굴·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학생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기계설비분야의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